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8. 4.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 차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주요내용

1. 조사 개요	1
2. 총괄표	1
3. 주요실태조사 결과	5
① 장애인구 및 출현율	5
② 일반 특성	8
③ 건강 특성	11
④ 사회적 특성	18
⑤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22
⑥ 경제적 특성	25
⑦ 복지서비스 수요	31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주요내용

1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전국 총 3.6만 가구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짐.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으며, 2007년 법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실시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1990년 1차 조사 이후 8번째로 실시되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으로 2017년 9월~10월까지 실시
- 전국 36,200 가구 방문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시

※ 95% 신뢰수준 하에 표본오차 ± 0.515%

2 총괄표

□ 장애인구 및 출현율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장애 추정 인구수	268만명	273만명	267만명	
•장애 출현율	5.61%	5.59%	5.39%	
•장애 등록률	93.8%	91.7%	94.1%	
•65세 이상 인구	38.8%	43.3%	46.6%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
•1인 가구	17.4%	24.3%	26.4%	장애인가구 중 1인가구 증가
•후천적 장애발생률	90.5%	88.9%	88.1%	후천적 장애발생률 감소경향 2017년(질환 56.0%, 사고 32.1%) 2014년(질환 56.2%, 사고 32.7%) 2011년(질환 55.1%, 사고 35.4%)

□ 일반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대학 이상 학력	11.8%	15.3%	15.2%	만 25세 이상 장애인
•결혼상태(유배우)	58.1%	54.7%	55.3%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비율	17.1%	15.6%	14.7%	※ 의료급여 수급 현황 • 2017년 (149.9만명) • 2014년 (144.9만명) • 2011년 (161.2만명) ※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추정 (장애인실태조사 자료) • 2017년 (38.0만명) • 2014년 (41.3만명) • 2011년 (44.5만명)
•수급자 비율	17.0%	16.9%	16.3%	전국 수급률 3.2%(2016. 12 기준), 약 5.1배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각년도)

□ 건강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만성질환 유병률	71.4%	77.2%	81.1%	만 19세 이상
•스트레스 인지율 ¹⁾	53.0%	61.0%	58.0%	만 19세 이상
•우울감 경험률	21.4%	24.5%	18.6%	만 19세 이상
•건강검진 비율	70.4%	72.9%	72.7%	(2017년) 전 연령 (2014, 2011년) 만40세이상 ※ 2017년 만40세 이상 건강검진율 75.7%
•정기적 진료(치료) 여부	72.4%	78.3%	82.3%	전 연령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23.0%	25.4%	26.0%	전 연령

주 : 1) 2014년도 : 5점 척도 사용 (매우 많이 느낌-느끼는 편-보통-느끼지 않는 편-전혀 느끼지 않음)

□ 사회적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생활만족도	3.1점	3.2점	3.2점	5점 기준(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2.8점	2.9점	3.0점	5점 기준 (5점 매우 만족, 1점 매우 불만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 인식 ¹⁾	19.3%	27.4%	20.1%	‘차별이 없다’에 대한 응답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7.8%	8.3%	13.9%	‘알고 있다’에 대한 응답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²⁾	34.7%	39.8%	36.7%	‘어렵다’에 대한 응답

주 : 1) 4점 척도 (~~전혀 없다~~-~~별로 없다~~-약간 있다-매우 있다)

2) 4점 척도 (~~매우 어렵다~~-~~약간 어렵다~~-거의 어렵지 않다-전혀 어렵지 않다)

□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일상생활 남의 도움 필요정도	27.5%	32.2%	34.0%	‘일부 남의 도움 필요’ 이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도와주는 사람 유무	84.0%	85.3%	83.3%	
•도움 충분정도 ¹⁾	59.2%	58.9%	63.6%	

주 : 1) 4점 척도 사용 (~~매우 충분~~-~~충분~~-부족-매우 부족)

□ 경제적 특성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가구 소득 수준	(장애)1,982,000(전국)3,260,000	(장애)2,235,000(전국)3,560,000	(장애)2,421,000(전국)3,617,000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과 비교 * 가계동향(2011,2014,2017.2/4분기) 전국1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60.8%	62.8%	66.9%	
•가구 지출 수준	(장애)1,618,000(전국)2,642,000	(장애)1,706,000(전국)2,814,000	(장애)1,908,000(전국)2,761,000	전국가구 월평균 지출과 비교 * 가계동향(2011,2014,2/4분기, 2016. 4/4분기) 전국1인이상 가구 월평균 지출
	61.2%	60.6%	69.1%	
•현재 장애추가비용	160.7천원	164.2천원	165.1천원	
•차량 소유율	52.7%	52.2%	52.1%	
•자가 비율	58.9%	58.5%	62.3%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 장애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35.5%	36.6%	36.9%	만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비율
• 실업률	7.8%	6.2%	5.1%	통계청 ILO기준 적용
• 취업장애인 월평균 근로소득	(장애)1,419,000 (임금)2,033,000	(장애)1,525,000 (임금)2,240,000	(장애)1,710,000 (임금)2,430,000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비교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1.8, 2014.8, 2017.8.)

□ 복지서비스 수요

구 분	2011년	2014년	2017년	비 고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1순위)	소득보장 (38.2%) 의료보장 (31.5%)	소득보장 (38.5%) 의료보장 (32.8%)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 (27.6%)	
•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률	94.5%	94.8%	96.0%	•통신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85.4%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75.8%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기관 이용 경험률	18.9%	23.0%	21.0%	(2017년) •장애인복지관 10.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 (2014년) •장애인복지관 9.5% •특수학교및 특수학급 5.8%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기관 이용 희망률	장애인복지관 (31.2%) 이동지원서비스센터 (30.0%) 재활병의원 (26.3%)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4.8%) 장애인재활병의원 (31.0%) 장애인재활치료시설 (24.0%)	장애인특별운송사업 (37.1%) 장애인재활병의원 (36.1%) 장애인체육시설 (21.0%)	※ 장애인복지관 (20.7%)
• 장애인등록 이후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 충분도	2.8점	2.8점	2.9점	5점 기준 (5점 매우 많이 받고 있다, 1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3 주요 실태조사 결과

① 장애 인구 및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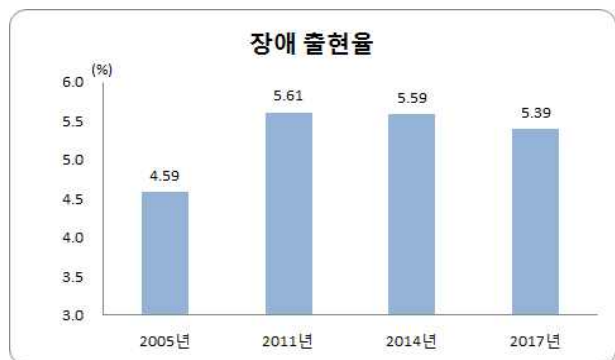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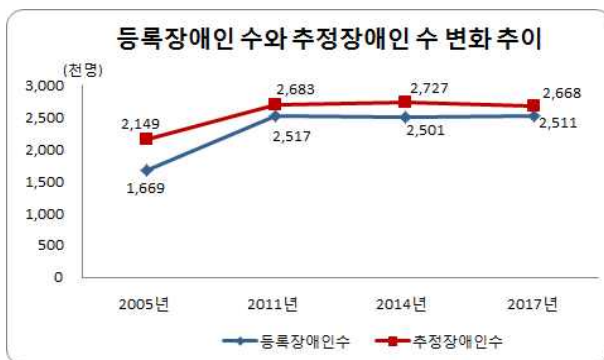
□ 본 조사를 통해 파악된 장애 인구수는 총 267만명이고, 장애 인구를 바탕으로 추정된 장애출현율은 5.39%임.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장애 인구수 273만명, 장애출현율 5.59%

【 전국 장애인 추정수 】

(단위: 명, %)

구분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전체
2017년	장애인수	2,580,340	88,071	2,668,411
	출현율	5.21	-	5.39
2014년	장애인수	2,646,064	80,846	2,726,910
	출현율	5.43	-	5.59
2011년	장애인수	2,6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5.47	-	5.61



□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1만명('16. 12월 기준)으로 94.1%의 장애등록률을 나타내며, 2011년 이후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음.

【 장애등록률 변화추이 】

(단위: 명, %)

2011년			2014년			2017년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률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률	등록 장애인수	추정수	등록률
2,517,312	2,683,477	93.8	2,501,112	2,726,910	91.7	2,511,051	2,668,411	94.1

주 : 2011년 등록장애인: 2010. 12. 기준, 2014년 등록장애인: 2013. 12. 기준, 2017년 등록장애인: 2016. 12. 기준

-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장애등록과 연계되는 서비스 내용의 확대 등에 기인하여 장애 등록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다만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가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등록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과정의 번거로움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장애등록 정보를 널리 알리고 등록과정의 이용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미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 : 2017년 (63.3%), 2014년 (67.0%)

【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등록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32.7	34.3	31.2
등록해도 별 혜택이 없을 것 같아서	12.2	21.2	18.2
등록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아서	3.4	7.5	8.1
등록과정이 번거로워서	5.0	13.5	17.0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17.0	4.2	4.3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14.6	10.0	10.4
등록하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4.7	1.9	5.8
앞으로 장애상태가 호전될 것 같아서	7.7	2.2	-
기타	2.7	5.1	5.1
계	100.0	100.0	100.0

□ 장애발생의 경우 주로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88.1%)

- 장애발생 원인의 경우 후천적 원인은 88.1%로 2014년 88.9%와 비슷한 수준으로 2011년 이후 감소 경향을 보임.
- 후천적 원인 중 질환은 56.0%로 2014년 56.2%에서 0.2% 포인트 감소하였고, 사고는 32.1%로 2014년 32.7%에 비해 0.6% 포인트 감소함.

【 재가장애인의 장애 발생 원인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1년도	2017년도
선천적 원인	4.0	4.6	4.7	5.1
출산시 원인	0.7	0.9	1.3	1.4
후천적 원인	89.0	90.5	88.9	88.1
(질환)	52.4	55.1	56.2	56.0
(사고)	36.6	35.4	32.7	32.1
원인불명	6.3	4.0	5.1	5.4
계	100.0	100.0	100.0	100.0

② 일반 특성

□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함.

○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에 따라 장애인인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여줌.

※ 2017년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3.8%, 707만 명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연령 분포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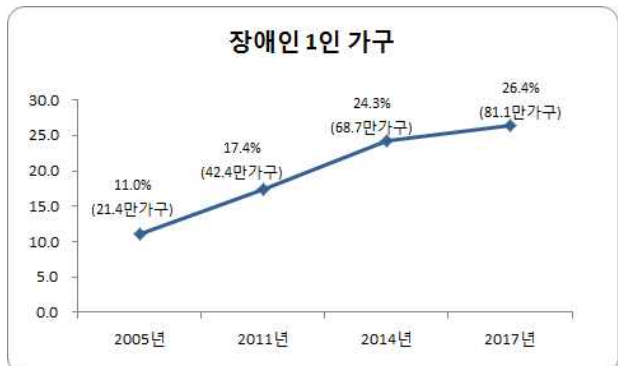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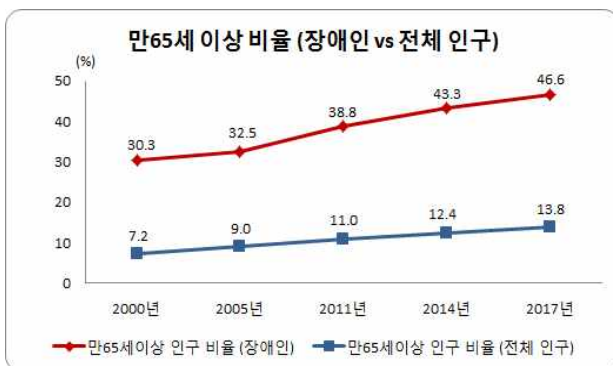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만 0-17세	3.9	3.5	2.7	3.3
만 18-29세	5.8	4.2	4.1	4.6
만 30-39세	9.7	7.2	6.7	4.8
만 40-49세	18.2	14.2	12.5	10.4
만 50-64세	29.9	32.1	30.7	30.3
만 65세 이상	32.5	38.8	43.3	46.6
계	100.0	100.0	100.0	100.0

○ 연령별 장애인 분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46.6%로 2014년 43.3%에 비해 3.3% 포인트 증가

※ 2017년 기준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3.8%, 707만명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 장애인 중 1인 가구의 비율은 26.4%로 2014년 대비 2.1%p 증가

※ 2017년 기준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수 556만 가구 (28.5%, 장래가구추계, 통계청)



주 : 전체인구 자료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 25세 이상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이상 학력자가 15.2%로 2014년 15.3%와 유사하고,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는 감소 경향을 보임.

【 교육 정도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무학	16.5	12.3	12.0	10.9
초등학교	30.8	33.0	29.4	27.5
중학교	16.6	18.4	16.0	16.8
고등학교	25.5	24.5	27.2	29.6
대학 이상 ¹⁾	10.6	11.8	15.3	15.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25세 이상 기준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 장애인 중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퇴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4년 등 이전 조사 결과와 유사함.

- 그러나 만 2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심한 장애로 인해서'(56.1%)가 가장 큰 이유이며 '다니기 싫어서'(16.2%),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부족'(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경향을 보임.

【 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전체	만 25세 미만
심한 장애로 인해서	8.7	5.3	6.8	5.5	56.1
집에서 다니지 못하게 해서	10.9	11.6	13.0	11.9	-
다니기 싫어서	3.7	4.3	5.9	6.4	16.2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1.4	75.3	70.1	72.5	-
근처에 학교가 없어서	1.8	1.4	1.5	1.4	0.5
학교내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0.1	-	0.1	0.1	3.5
편의제공(의사소통 지원 등)부족 ¹⁾	- *	- *	0.0	0.1	-
주위의 시선 및 편견 때문에	0.9	1.3	1.2	1.1	7.0
학교까지 이동의 어려움 ²⁾	- **	- **	- **	0.5	2.8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보조인력 부족 ²⁾	- **	- **	- **	0.1	9.4
기타	2.4	0.7	1.5	0.4	4.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 2014년도에 추가된 보기문항

2) ** 2017년도에 추가된 보기문항

□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유배우 비율이 55.3%로 나타남.

○ 그 외 사별 18.7%, 미혼 15.3%, 이혼 9.0%, 별거 1.6%의 순으로 나타남.

【 결혼 상태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미혼	15.5	9.0	12.8	16.9	8.8	13.5	19.2	10.1	15.4	18.1	11.5	15.3
유배우	72.0	48.5	62.5	68.0	44.7	58.1	63.7	42.5	54.7	65.0	42.5	55.3
사별	4.7	35.4	17.2	5.0	38.2	19.1	5.6	38.2	19.5	5.3	36.6	18.7
이혼	6.3	5.7	6.1	8.8	7.2	8.1	9.3	8.0	8.7	9.9	7.9	9.0
별거	1.5	1.4	1.4	1.3	1.1	1.2	2.0	1.0	1.6	1.6	1.5	1.6
기타(미혼외부)	-	-	-	0.1	-	0.0	0.1	0.1	0.1	0.0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만 18세 이상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은 16.3%로 2014년의 16.9%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전체 인구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인 수급률 3.2%(2016년 12.기준)에 비해 약 5.1배 높게 나타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및 형태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아니오		83.4	83.0	83.1	83.7
예		16.6	17.0	16.9	16.3
일반수급가구 ¹⁾	생계급여 ²⁾	14.4	16.2	16.3	15.0
조건부수급가구 ¹⁾	의료급여 ²⁾	0.8	0.7	0.5	16.2
의료·교육·자활특례 ¹⁾	주거급여 ²⁾	1.4	0.0	0.1	14.4
	교육급여 ²⁾				1.4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2005~2014년 보기문항

2) 2017년 보기문항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문항 변경)

③ 건강 특성

□ 만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017년 81.1%로 2014년의 77.2%등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고혈압 및 당뇨병 유병률은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장애인구 만 19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44.8%), 당뇨병 유병률(21.1%)

* 장애인구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46.9%), 당뇨병 유병률(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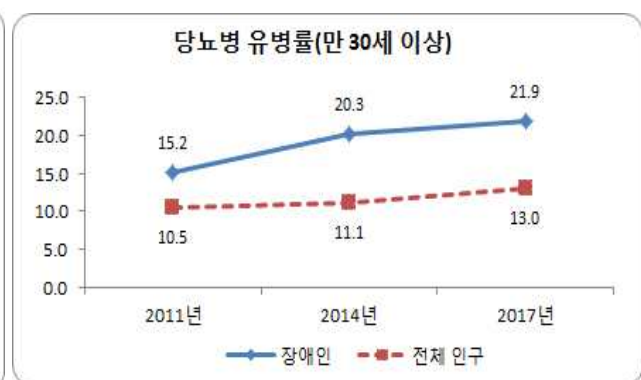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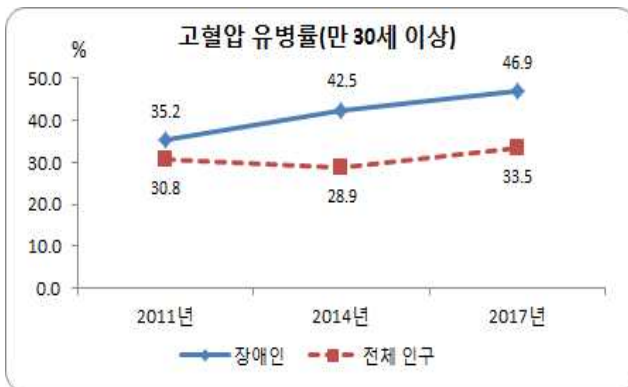
* 전체인구 만 3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33.5%), 당뇨병 유병률(13.0%)

【 만성질환 여부 : 고혈압 / 당뇨(만 30세 이상)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만성질환 있음 (고혈압)	73.1 (35.2)	78.6 (42.5)	83.2 (46.9)
(당뇨병)	(15.2)	(20.3)	(21.9)
만성질환 없음	26.9	21.4	16.8
계	100.0	100.0	100.0

주 : 만 30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전체인구의 2017년은 2016년도 자료임.

· 고혈압 유병률

- 국민건강영양조사: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을(만30세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고혈압)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30세이상).

· 당뇨병 유병률

- 국민건강영양조사: 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 복용 또는 인슐린 주사를 투여받고 있는 분을(만30세 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현재 3개월 이상 계속되는 질환(당뇨병) 여부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경우(만30세이상).

○ 장애인은 평균 2.2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한 만성질환은 고혈압(44.8%), 허리·목통증(29.6%), 골관절염(22.6%), 당뇨병(21.1%) 순이었음.
- 고혈압 치료율은 98.5%, 당뇨병 치료율은 98.1%로 나타났고 우울증은 80.9%가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관적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인지율)는 14.9%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하여, 전체 인구의 31.0%보다 훨씬 낮았음.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장애인	전체 인구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4.9	31.0
	보통	33.8	50.6
	나쁨	51.3	18.4
계		100.0	100.0

주: 만19세 이상

○ 우울감 경험률은 18.6%이며, 자살 생각률은 14.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의 우울감 경험률 13.3%, 자살 생각률 5.1%에 비해 높았음.

- 특히 만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9.0%, 자살 생각률은 15.2%로 높게 나타남.

【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

(단위: %)

	전체 장애인	연령별		전체 인구 ²⁾
		만19~64세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우울감 경험	18.6	18.3	19.0	13.3
자살 생각	14.3	13.5	15.2	5.1

주: 1) 만19세 이상 기준

2) 전체인구: 2015 국민건강통계 I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58.0%로 201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27.9%)와 비교할 때, 장애인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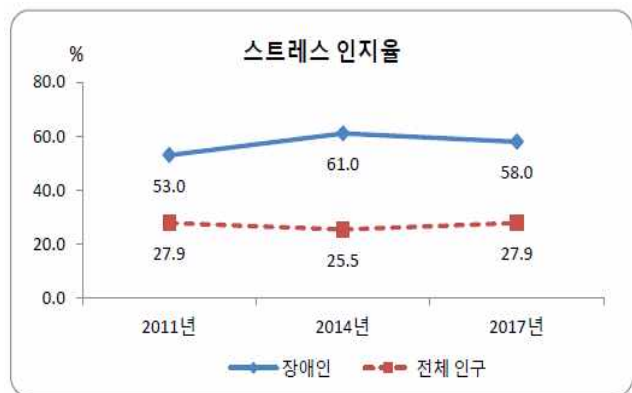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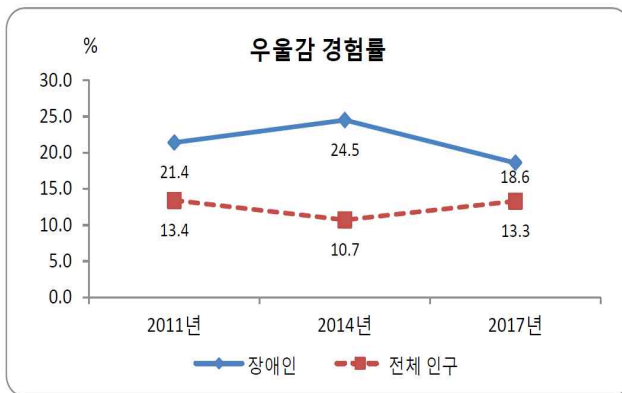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년도 ¹⁾	2014년도 ²⁾	2017년도 ²⁾
스트레스 (매우 많이 느낌 - 느끼는 편임)	53.0	61.0	58.0
스트레스 (보통 - 느끼지 않는 편 - 전혀 느끼지 않음)	47.0	39.0	42.0
계	100.0	100.0	100.0

주 : 만 19세 이상

1) 2011년 : 4점척도 (대단히 많이 - 많이 vs 조금 느끼는편 - 거의 느끼지 않음)

2) 2014년 : 5점척도 (매우많이 느낌 - 느끼는 편 vs 보통이다 - 느끼지 않는 편 - 전혀 느끼지 않음)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전체인구의 2017년은 2016년도 자료임.(단, 우울감 경험률 2014년은 2013년도 자료이며, 2017년은 2015년도 자료임.)

· 우울감 경험률

-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만19세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분율(만19세이상).

· 스트레스 인지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분율(만19세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평소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매우 많이 느낌' 또는 '느끼는 편이다'의 분율(만19세이상).

□ 장애인(만19세 이상)의 건강행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만19세 이상)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 30.4%로 2014년의 31.9%에 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남성 장애인의 경우, 월간 음주율이 44.2%로, 2014년의 46.1%에 비해 낮아졌으며,

- 장애인의 고위험 음주율은 11.0%로 전체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인 13.2%에 비해 낮은 수준임.

* 고위험 음주 : 월 2회 이상 / 1회 음주량 남 7잔 이상, 여 5잔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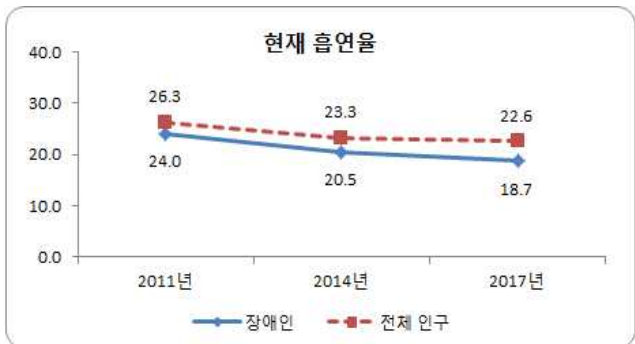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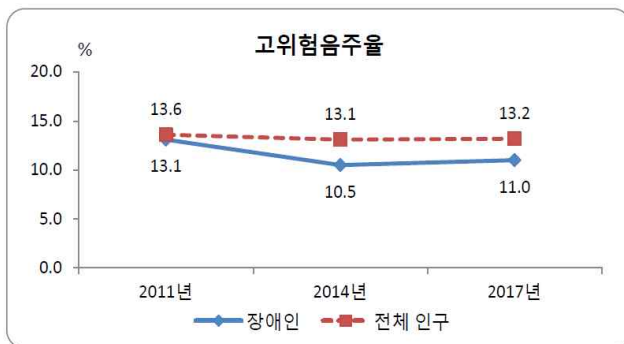
- 장애인(만19세 이상)의 흡연율은 2017년 18.7%로 2014년 20.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22.6%)와 비교할 때도 낮은 수준임.
- 남성 장애인의 현재흡연율은 30.4%로 2014년 조사의 32.8%보다 낮은 수준임.

【 현재 흡연율(만 19세 이상)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흡연	38.6	4.1	24.0	32.8	3.9	20.5	30.4	3.1	18.7
비흡연	61.4	95.9	76.0	67.2	96.1	79.5	69.6	96.9	8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만 19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통계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전체인구의 2017년은 2016년도 자료임.

· 고위험음주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만 19세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1회 평균 음주량이 7잔(여자 5잔) 이상이며,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분을(만 19세이상).

· 현재 흡연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을(만 19세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 '매일 피움'과 '가끔 피움'에 응답한 경우(만 19세이상).

- 현재 장애인의 82.3%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 등의 이유로 정기적인 병의원 이용은 2014년도의 78.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특히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 내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 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의 경우 대부분 정기적인 병의원 진료를 받고 있음.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지속적 진료 받음	72.4	78.3	82.3
지속적 진료 받고 있지 않음	27.6	21.7	17.7
계	100.0	100.0	100.0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2017, 장애유형별) 】

(단위: %)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예	81.3	92.2	81.3	78.8	75.3	62.7	71.4	97.8	100.0	100.0	100.0	100.0	75.5	92.2	97.0	82.3
아니오	18.7	7.8	18.7	21.2	24.7	37.3	28.6	2.2	-	-	-	-	24.5	7.8	3.0	17.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이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은 2017년 17.2%로 2014년 19.3%에서 감소하였으나, 전체 인구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8.8%)와 비교할 때 여전히 더 높게 나타남.

○ 병의원 미충족 의료의 주된이유는 경제적 이유가(39.3%)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교통편의 불편(25.2%), 병의원에 동행할 사람이 없어서(7.4%), 병의원의 편의시설 부족(1.2%), 의사소통의 어려움(2.5%) 등 의료서비스 이용의 물리적 접근성 및 인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한 경우도 크게 나타남.

【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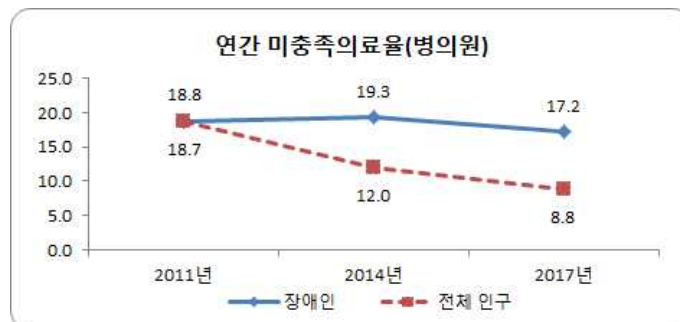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미충족 의료 경험 있음	18.8	19.3	17.2
미충족 의료경험 이유			
(경제적인 이유)	58.2	58.7	39.3
(병의원 등への 예약 어려움)	2.0	1.9	0.1
(교통편 불편)	19.4	15.5	25.2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 운영안함)	8.4	6.2	- **
(병의원 등에서의 오랜 기다림)	3.9	2.5	0.9
(증상의 가벼움)	4.5	6.4	6.9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 *	1.8	1.2
(의사소통의 어려움)	- *	4.3	2.5
(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0.6
(시간이 없어서)			14.1
(의료기관 방문시 동행 할 사람이 없음)			7.4
(어떤 의료기관에 가야할지 몰라서)			1.0
(기타)	3.6	2.6	0.6
미충족 의료 경험 없음	81.2	80.7	82.8
계	100.0	100.0	100.0

주 : 만 19세 이상

* 2011년 보기문항 없음

** 2017년도 보기문항 없음

(음영) 2017년에 신설 보기문항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6 국민건강건강행태 및 만성질환통계 (자료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전체인구의 2017년은 2016년도 자료임.

· 연간 미충족의료율

-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만19세이상).

- 장애인실태조사: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만19세이상).

□ 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은 26.0%로 2011년의 2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함.

○ 물리치료(22.9%)를 비롯하여 발달재활사업의 주요서비스인 언어(21%)·놀이(0.9%)치료 및 기타 재활치료서비스(1.4%) 이용률이 소폭 상승함.

-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등에 따라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은 19세 이하 장애아동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연도별로 증가 경향을 보임.

※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2014년 (62.5%) → 2017년 (69.4%)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및 예산: 2013년 (31천명, 577억원) → 2017년 (53천명, 698억원)

【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23.0	25.4	26.0
물리치료	20.3	22.4	22.9
작업치료	1.0	1.6	1.5
언어치료	1.5	1.6	2.1
음악치료	0.9	1.0	0.9
놀이치료	0.5	0.7	0.9
미술치료	1.1	1.1	0.9
심리행동치료	1.0	1.0	1.0
기타	1.2	1.1	1.4

【 연령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연령 별 재활치료서비스 이용률	전체	23.0	25.4	26.0
	1 ~ 19세	56.0	62.5	69.4
	20 ~ 44세	14.7	12.5	15.7
	45 ~ 64세	18.2	20.0	18.2
	65세 이상	28.1	31.8	31.4

4 사회적 특성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유지 및 향상됨.

-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4년과 동일하고,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3.0점으로 2014년보다 향상됨.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2014년 : 생활만족도 3.2점,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2.9점

- 영역별 만족도는 한 달 수입(소득), 여가 활동,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 수준은 다소 높아지고, 가족과의 관계, 결혼 생활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낮아짐.

【 생활 만족도 】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매우 만족	3.5	8.7	7.1	5.0
약간 만족	20.7	44.5	48.5	53.6
보통이다 ¹⁾	46.7	-	-	-
약간 불만족	21.7	34.5	33.8	32.6
매우 불만족	7.4	12.3	10.6	8.8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2008년 : 5점 척도 / 2011년 이후 4점 척도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매우 만족한다	4.4	4.3	5.4	4.0
약간 만족한다	14.8	35.2	37.5	45.3
보통이다 ¹⁾	39.3	-	-	-
약간 불만족한다	26.9	38.7	39.1	38.5
매우 불만족한다	14.5	21.8	18.0	12.2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2008년 : 5점 척도 / 2011년 이후 4점 척도

【 생활 영역별 만족도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가족들과의 관계	3.9	3.9	3.8
친구들 수(대인관계)	3.4	3.4	3.4
살고 있는 곳(집)	3.6	3.6	3.6
건강상태	2.7	2.7	2.7
한 달 수입(소득)	2.4	2.6	2.7
여가 활동	2.8	2.9	3.0
하고 있는 일	3.2	3.3	3.5
결혼생활	3.9	3.8	3.7

주 : 5점 척도 (1은 매우 불만족 - 5는 매우만족)

□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정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됨.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로 2014년 27.4%에 비해 감소하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3.9%로 2014년 8.3%에서 증가함.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이 낮아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장애인 차별이 있다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고려 할 때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함.
- 영역별 차별 경험에서 대학교 입학시 차별 경험, 운전면허 취득시 차별경험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없다	13.3	19.3	27.4	20.1
있다	86.7	80.7	72.6	79.9
계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알고 있다	7.8	8.3	13.9
들어본 적이 있으나 내용은 모른다	21.3	23.1	25.3
알지 못한다	70.8	68.7	60.7
계	100.0	100.0	100.0

【 사회적 차별 경험율 】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입학전학	유치원	30.5	27.1	37.1
	초등학교	34.2	38.8	40.3
	중학교	29.8	31.6	33.0
	고등학교	29.3	25.1	26.0
	대학교	16.3	12.5	11.6
학교생활	교사로부터	21.4	18.7	19.8
	또래학생으로부터	49.2	47.1	50.7
	학부모로부터	15.1	13.7	18.4
결혼시		26.5	16.4	17.9
취업시		34.0	35.8	30.9
직장생활	소득(임금)	20.7	23.9	19.4
	동료와의 관계	16.9	20.0	17.6
	승진	14.2	13.3	12.4
운전면허 제도상(취득시)		14.3	10.2	8.9
보험제도상(계약시)		53.7	45.4	36.4
의료기관 이용시		3.7	4.6	4.0
정보통신이용시 (방송 포함)		2.0	1.9	1.9
지역사회생활 (음식점, 극장, 공연장, 체육시설 등)		7.8	7.3	8.1

주: 1) (음영) 2017년이 2014년에 비해 차별 경험이 증가한 영역

2) 사회적 차별 경험은 영역마다 경험이 가능한 집단을 모수로 하므로 각기 다름

- 장애인의 외출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70.1%로 가장 많았고, 주 1~3회 외출은 19.5%, 월 1~3회 외출은 5.9%의 순으로 나타남.

【 외출 빈도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거의 매일	66.6	67.3	70.1
주 1~3회	20.0	20.3	19.5
월 1~3회	8.5	7.2	5.9
전혀 외출 않음	4.9	5.2	4.5
계	100.0	100.0	100.0

- 교통수단 이용시 장애인의 36.7%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 ‘버스·택시가 불편해서’(64.4%)가 가장 많고 ‘장애인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18.3%),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14.6%)의 순으로 나타나,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의 이유는 증가하고 지하철 편의시설 이유는 감소함.

【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34.7	39.8	36.7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61.1	61.0	64.4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	20.4	17.2	14.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 부족)	14.2	14.3	18.3
(장애인용 자가용 보급 및 운전면허증 확보의 어려움)	0.6	0.4	0.7
(전동휠체어가 없어서)	1.1	1.8	- *
(기타)	2.5	5.2	2.0
교통수단 이용시 어렵지 않음	65.3	60.2	63.3
계	100.0	100.0	100.0

주: * 2017년 보기문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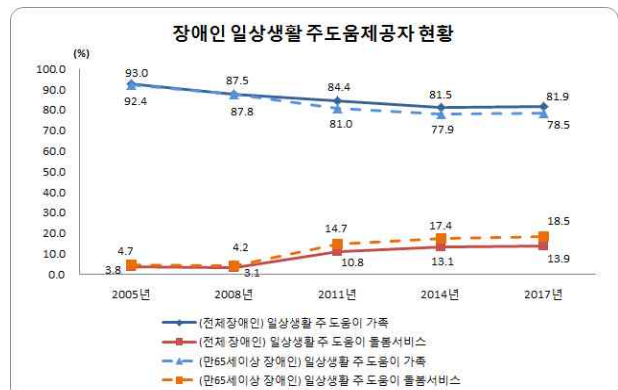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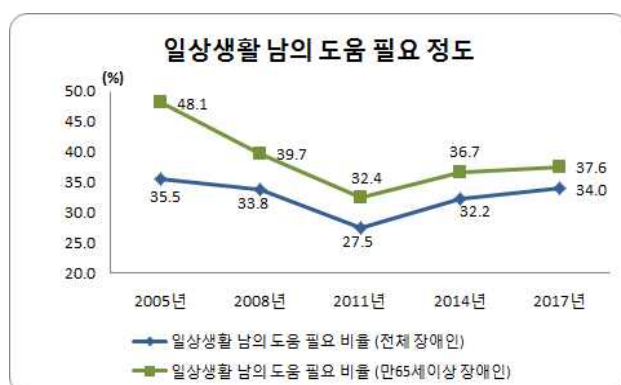
5 일상생활 및 돌봄 특성

-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 필요정도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34.0%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2014년 32.2%에 비해 증가함.
- 만65세 이상 장애노인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37.6%로 전체 장애인에 비해 높으며, 2014년(장애노인의 일상생활 도움필요 36.7%)에 비해서도 소폭(0.9%p) 높아짐.
- 일상생활 수행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중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비율은 83.3%로 2014년의 85.3%에 비해 다소 감소함.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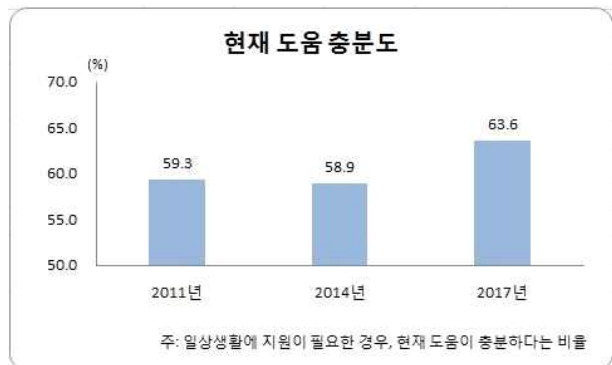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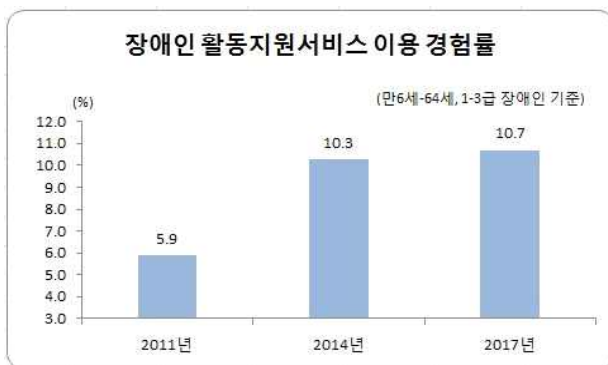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년		2014년		2017년	
	전체	만 65세 이상	전체	만 65세 이상	전체	만 65세 이상
혼자서 스스로	56.9	47.8	51.3	44.9	46.9	38.8
대부분 혼자서	15.6	19.8	16.5	18.5	19.2	23.6
일부도움 필요	13.6	16.2	17.7	21.2	19.5	21.7
대부분 필요	7.5	7.4	8.6	8.9	8.9	10.1
거의 남의도움 필요	6.4	8.8	5.9	6.5	5.5	5.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의 증가와 함께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의 충분 수준(현재 도움 충분도)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임.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경험률(만6-64세, 1-3급장애인 기준)은 2017년 10.7%로 2014년의 10.3%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현재 도움이 충분하다는 비율도 2017년의 63.6%로 2014년의 58.9%에 비해 증가함.



- 주 도움제공자는 가족구성원이 81.9%로 여전히 가족의 부담이 높았음.

-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공적 돌봄서비스제공자가 주 도움 제공자인 비율은 13.9%로 2011년의 10.8%, 2014년의 13.1%에서 점차 증가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와 이에 따른 예산 증가 등 돌봄서비스 확대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및 예산: 2013년 (48천명, 3,829억원) → 2017년 (71천명, 6,061억원)

- 주돌봄 제공자가 가족이 아닌 돌봄서비스 제공자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장애인노인의 경우 더 크게 나타남.

※ 주돌봄 제공자가 가족 (전체장애인 81.9%, 장애인노인 78.5%) / 주돌봄 제공자가 돌봄서비스 제공자 (전체장애인 13.9%, 장애인노인 18.5%)

【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유형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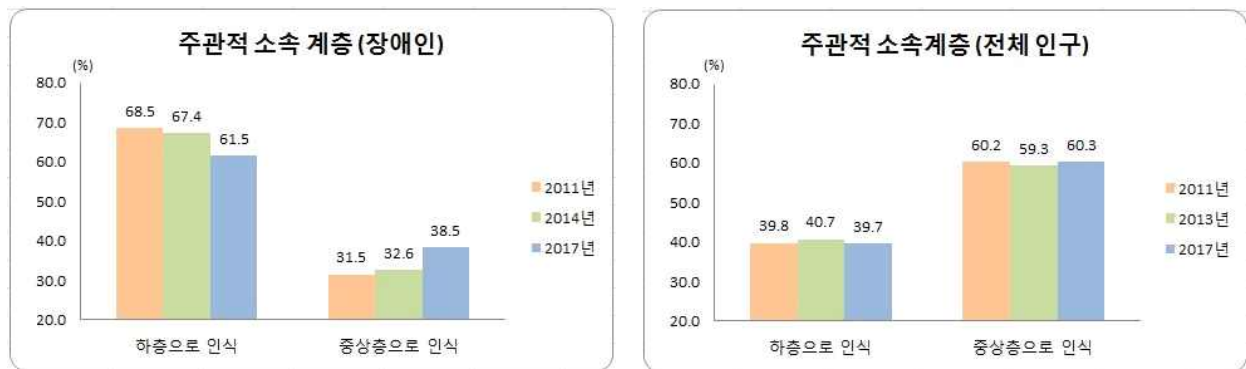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배우자	37.4	37.7	39.4
부모	23.3	20.1	21.1
자녀(며느리, 사위)	18.6	16.7	16.6
형제·자매	3.4	5.1	3.7
조부모	0.6	1.1	0.5
손자녀	0.6	0.5	0.3
기타 가족	0.3	0.3	0.3
친척	0.6	0.8	0.5
친구	0.6	0.8	0.2
이웃	1.7	1.1	1.1
활동보조인	1.7	3.3	2.2
가정봉사원	1.5	0.5	0.6
간병인	2.8	2.0	2.4
요양보호사	4.8	7.3	8.7
기타	1.9	2.7	2.4
계	100.0	100.0	100.0

6 경제적 특성

□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인식 및 상황은 지난 2014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 상충 혹은 중충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8.5%로 2014년에 비해 다소(5.9%p) 높아졌으나,

- 여전히 전체 장애인의 61.5%는 자신의 가구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구(일반 가구의 1.5배)로 인식하고 있었음.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421천원으로 2014년 2,235천원에 비해 8.3% 포인트 증가함.

○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액 상승 등에 따른 공적이전 소득의 증가를 비롯하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6% 증가율에 비해 6.7% 포인트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2011년 3,260천원, 2014년 3,560천원, 2017년 3,617천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전국 1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

【 월 평균 가구소득 및 가구지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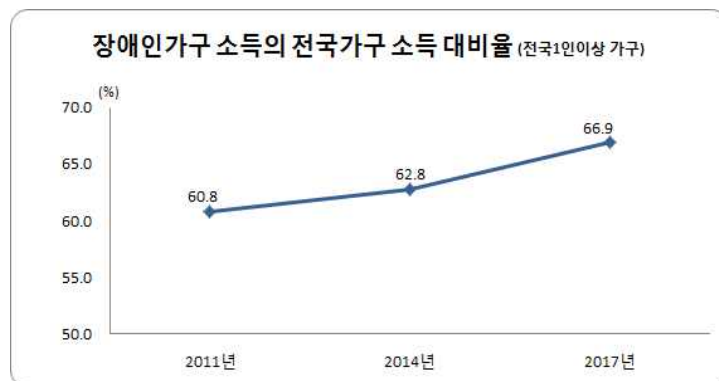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¹⁾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²⁾	장애인 가구	전국가구 ³⁾
가구소득액 (전국가구 대비율)	1,982	3,260 (60.8%)	2,235	3,560 (62.8%)	2,421	3,617 (66.9%)
가구지출액 (전국가구 대비율)	1,618	2,642 (61.2%)	1,706	2,814 (60.6%)	1,908	2,761 (69.1%)

자료 :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 2/4분기)』, 2011, 전국1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지출

2)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4. 2/4분기)』, 2014, 전국1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지출

3) (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7. 2/4분기)』, (지출) 2017, 『가계동향조사(2016. 4/4분기)』, 2016.
전국1인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지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908천원으로 2014년 1,706천원에 비해 11.8% 포인트 증가함. 이는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이 1.9% 포인트 감소한 것과 대비하여 증가세를 보인 것이나 장애인 가구 지출은 전국 가구 월평균지출의 69.1%수준으로 낮음.

※ 전국 가구 월평균 지출: 2011년 2,642천원, 2014년 2,814천원, 2017년 2,761천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전국 1인이상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증가율과 월평균 지출 증가율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평균 증가율 및 지출 증가율에 비해 높게 나타남. 다만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 및 지출 수준 모두 전국 가구 평균의 약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월 165.1천원으로 나타남.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 중 교통비(26천원→20천원), 장애인보조기기구입·유지비(19천원→7천원)는 감소함.

- 장애인보조기기구입·유지비의 지속적인 감소는 장애인 보조기기 에 대한 공적급여 항목의 증가 등(건강보험 급여 내용에 보청기 포함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 중 보육·교육비(4천원→8천원), 보호·간병비(14천원→21천원), 재활기관이용료(4천원→5천원),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17천원→23천원)는 증가함.

- 만65세 이상 노인 비율의 증가와 돌봄서비스 이용자 확대 등 에 따른 보호·간병비 증가,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이 용 확대에 따른 보육·교육비 증가 경향이라 할 수 있음.

【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월평균) 】

(단위: 천원)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월평균 총 추가비용	160.7	164.2	165.1
교통비	22.8	25.6	20.5
의료비	56.8	66.0	65.9
보육·교육비	6.0	4.1	8.0
보호·간병비	14.1	13.6	20.6
재활기관이용료	1.9	4.2	4.8
통신비	9.6	9.9	9.8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유지비	31.7	18.9	7.2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5.4	16.8	22.9
기타	12.3	5.1	5.4

주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란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장애인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것을 의미

○ 장애유형별로는 신체내부장해(268.6천원), 정신적장애(238.7천원), 신체외부(감각장애제외)장애(176.5천원), 감각장애(87.2천원)의 순 으로 나타남.

- 세부항목에서는 신체외부장애의 경우 의료비, 보호·간병비, 교통비에서, 정신적장애의 경우 의료비, 보육·교육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에서, 그리고 신체내부장애의 경우 의료비에서 높게 나타남.
- 장애정도별로는, 중증장애(1~3급)의 추가비용 242.5천원이 경증장애(4~6급)의 104.8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부항목에서 중증장애(1~3급)는 추가비용 중 의료비, 보호·간병비 비중이 높았고, 경증장애(4~6급)는 의료비, 부모사후 및 노후대비비, 교통비의 비중이 높음.
-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2.1%로 2014년 52.2%와 비슷한 수준임.
- 장애인 가구의 10가구 중 5.2가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전국의 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¹⁾는 0.88대로 10가구 중 8.8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음(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가구내 차량보유 여부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있다	52.7	52.2	52.1
없다	47.3	47.8	47.9
계	100.0	100.0	100.0

-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9%(15세 이상 인구대비 전국 취업자 비율 61.3%)이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5.1%로 2011년도 장애인 실업률 6.2%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국 실업률 3.8%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1) 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 = 자가용 등록대수 ÷ 장애가구추계에 의한 전국 가구수

【 취업 인구 및 취업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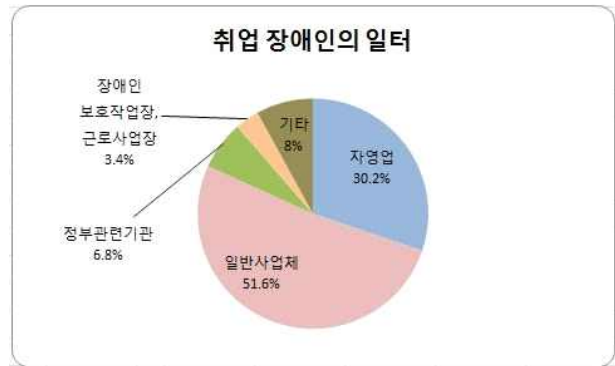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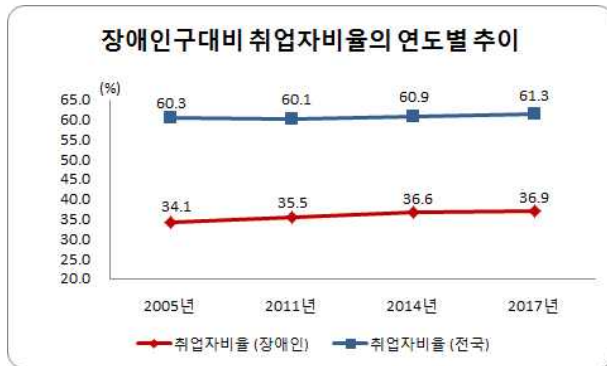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실업률	취업자 비율
			계	취업	실업					
2017	장애인	2,522,593	981,028	931,429	49,599	1,541,565	38.89	94.94	5.06	36.92
	전국 ¹⁾	43,899,000	27,993,000	26,919,000	1,074,000	15,906,000	63.8	96.2	3.8	61.3
2014	장애인	2,599,890	1,013,201	950,771	62,430	1,586,689	38.97	93.84	6.16	36.57
	전국 ¹⁾	42,490,000	26,825,000	25,875,000	949,000	15,666,000	63.1	96.5	3.5	60.9
2011	장애인	2,540,285	977,588	901,505	76,083	1,562,697	38.48	92.22	7.78	35.49
	전국 ²⁾	41,003,000	25,480,000	24,661,000	819,000	15,523,000	62.1	96.8	3.2	60.1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년 2/4분기 기준)』, 2017.

2)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14년 6월 기준)』, 2014.

3) 통계청, 『한국통계월보(2011년 6월 기준)』, 2011.



- 취업장애인의 직장에서의 지위는 상용근로자 26.9%, 일용 및 임시 근로자 42.0%, 자영업자 27.3%인 것으로 나타남.
- 취업장애인 중 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4년에 비해 9.1% 포인트 증가하였고,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2014년에 비해 9.1% 포인트 감소하여 임금 근로자의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보임.
- 임금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는 2014년에 비해 6.0% 포인트 증가하고, 상용 근로자는 3.1% 포인트 증가하여 장애인 임금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취업장애인의 지난 주 일(직장)에서의 지위 】

(단위: %)

구분	2005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임금근로자	57.8	65.3	59.8	68.9
상용 근로자	23.5	25.9	23.8	26.9
임시 근로자	15.5	16.8	17.2	22.2
일용 근로자	18.8	22.6	18.8	19.8
비임금 근로자	42.2	34.7	40.2	31.1
자영업자(고용주, 노점 포함)	34.5	30.5	34.7	27.3
무급가족종사자	7.7	4.2	5.4	3.7
계	100.0	100.0	100.0	100.0

- 취업장애인 월평균 소득은 1,710천원으로 2014년 1,525천원에 비해 12.1% 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이 8.5%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율이 큼.

- 그러나 취업장애인의 임금 수준은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의 70.4% 수준으로 여전히 낮음.

【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근로소득 수준 】

(단위: 천원)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취업 장애인	전국 임금근로자 ¹⁾	취업 장애인	전국 임금근로자 ²⁾	취업 장애인	전국 임금근로자 ³⁾
취업장애인 월평균 근로소득		2,033		2,240		2,430
(전국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대비율)	1,419	(69.8%)	1,525	(68.1%)	1,710	(70.4%)

자료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1. 8.)

2)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4. 8.)

3)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청 (2017. 8.)

7 복지서비스 수요

□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1.0%),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이었음.

○ 2014년의 국가 및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과 유사한 경향이며,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

※ 2014년 : 소득보장(38.5%),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

【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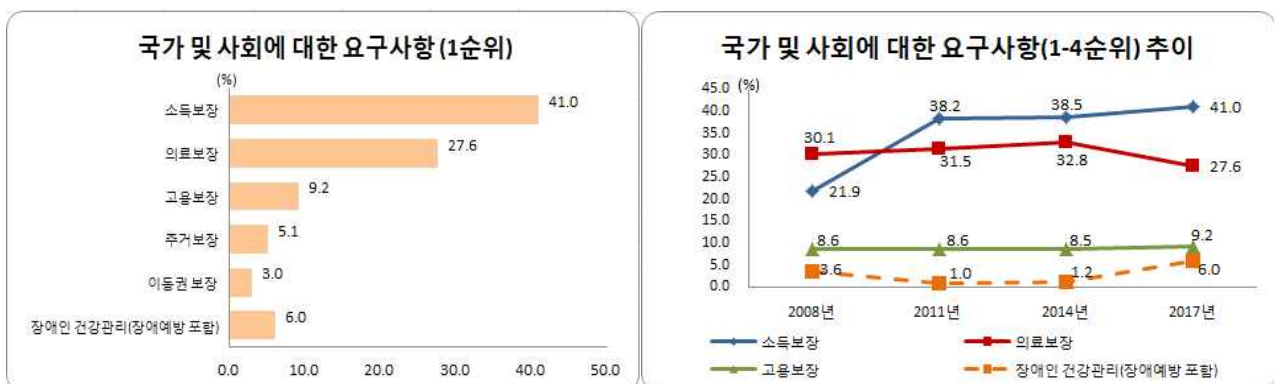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소득보장	38.2	38.5	41.0
의료보장	31.5	32.8	27.6
고용보장	8.6	8.5	9.2
주거보장	8.0	6.4	5.1
이동권 보장	2.0	1.8	3.0
보육 교육 보장	2.4	1.7	1.2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보장	1.6	1.6	1.4
장애인 인권보장	3.3	2.7	2.5
장애인 인식개선	1.8	2.2	2.0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¹⁾	1.0	1.2	6.0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참여보장 ²⁾	- *	0.6	0.5
재난안전관리 ³⁾	- *	0.5	0.3
기타	0.4	0.3	0.2
없음	1.2	1.3	-
계	100.0	100.0	100.0

주: 1) 2014년 까지 (장애예방), 2017년 (장애인 건강관리(장애예방 포함))

2) 2014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3) 2014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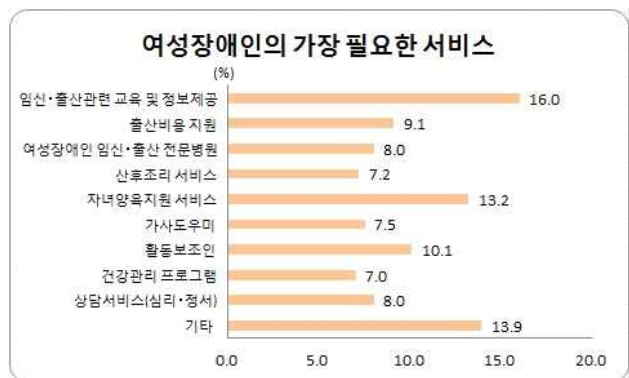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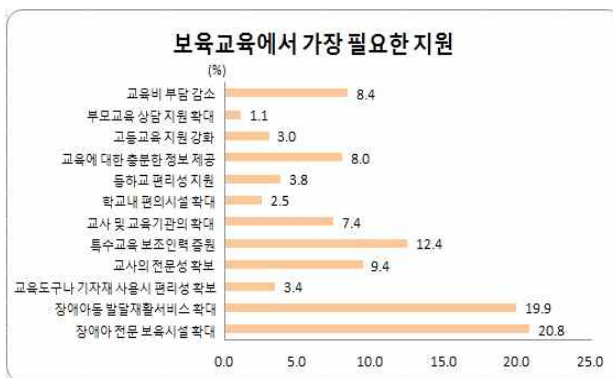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 20.8%가 장애아 전담보육 시설 확대를 꼽았고, 장애아동 발달재활사업 확대(19.9%),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12.4%), 교사의 전문성 확보(9.4%)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보육·교육시 가장 필요한 것 】

(단위: %)

구분	2017년도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 확대	20.8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19.9
교육도구나 기자재 사용시 편리성 확보	3.4
교사의 전문성 확보	9.4
특수교육 보조인력 증원	12.4
교사 및 교육기관의 확대	7.4
학교내 편의시설 확대	2.5
등하교 편리성 지원	3.8
교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8.0
고등교육 지원 강화	3.0
부모교육 상담 지원 확대	1.1
교육비 부담 감소	8.4
기타	-
계	100.0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16.0%가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을 꼽았고,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보조 서비스(10.1%), 출산비용 지원(9.1%)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여성장애인의 가장 필요한 서비스 】

(단위: %)

구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임신·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6.7	9.3	16.0
임신·출산·육아 관련 hot-line 서비스	4.4	4.2	4.8
출산비용 지원	9.4	11.7	9.1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	11.8	6.4	8.0
산후조리 서비스	8.5	6.7	7.2
육아용품 대여	-	0.1	0.2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16.1	11.7	13.2
자녀교육도우미	8.4	5.5	2.4
가사도우미	9.4	12.8	7.5
활동보조인	5.9	9.9	10.1
건강관리 프로그램	8.9	7.6	7.0
상담서비스(심리·정서)	6.1	7.2	8.0
자조집단(멘토)	3.4	2.9	3.2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	- *	4.0	3.3
기타	1.0	0.0	0.1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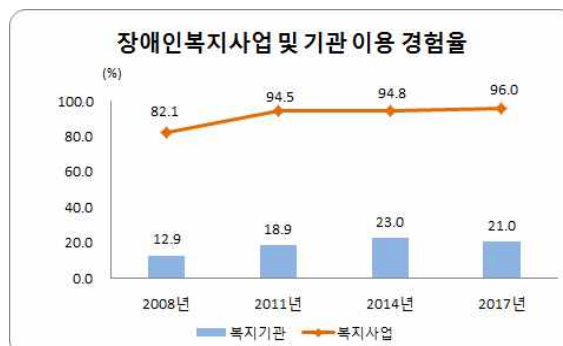
주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기준

* 2014년에 신설된 보기 문항

□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중 이용경험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이 10.0%였으며, 장애인특별운송사업(5.3%), 직업재활시설(3.4%)의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이용 욕구가 높은 서비스는, 장애인특별운송사업(37.1%), 장애인재활병의원(36.1%), 장애인체육시설(21.0%)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향후이용욕구: 장애인특별운송사업(장애인콜택시,해피콜 등) 34.8%, 장애인재활병의원(31.0%),장애인재활치료시설(24.0%)



□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충분도는 2.9점으로 2014년(2.8점)에서 높아짐.

※ 5점 기준 : 5점 매우 많이 받고 있다 ~ 1점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 장애등록 이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받은 지원 충분도 】

(단위: %)

구분	2008년도	2011년도	2014년도	2017년도
매우 많음	3.1	2.7	3.6	2.5
약간 받고 있음	33.8	34.9	32.2	33.3
보통이다 ¹⁾	9.0	-	-	-
별로 받지 못하고 있음	48.0	44.5	49.0	54.3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6.0	17.8	15.2	9.9
계	100.0	100.0	100.0	100.0

주 : 1) 2008년 : 5점 척도 / 2011년, 2014년, 2017년 : 4점 척도

○ 장애정도가 중증(1~3급)일수록 ‘장애등록 이후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 ‘장애등록 이후의 국가·사회로부터의 지원’에 긍정적인 비율은 중증장애(1~3급)가 53.2%, 경증장애(4~6급)가 24.8%임.

○ 중증장애(1~3급)일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률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이용 경험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에서 중증장애인의 평균 서비스 이용 수는 5.6개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평균 3.7개임.

